

중국 해병대의 기능변화와 향후 발전전망 연구

이표규* · 임계환**

요 약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중국 해병대의 발전과정 고찰을 통해, 기능 변화를 분석해 보고, 향후 발전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다. 중국 해병대는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바다, 호수 등 해양장애물을 극복하여 적 지역으로 투사할 목적으로 창설된 정규 엘리트 상륙군이다. 중국 해병대는 전체 군사력 규모에 비해 소수의 병력으로 편성되어 있어, 중국이 대외로 확장정책을 추구하기 이전에는 대만에 대한 상륙 및 지상 작전, 도서 지역방어 기능에 한정되었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중국이 자국의 절대 이익 추구 정책을 추구하면서 동남아 제국 및 일본과의 해양영토분쟁과 시진핑 시대 일대일로 정책에 따른 해외진진기지 방어 및 대외영향력 증대를 위한 기능이 확대되어, 전체 규모 또한 점차 증강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중국 해군과 해병대의 세력 증강이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의 아태지역 위상과 영향력을 견제하는 수단으로까지 발전된다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안보환경은 요동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우리 한국도 현 해군과 해병대 전력이 변화되는 안보환경에 적절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A Study on the Changing Functions of the PRC Marine Corps and Future Development

Pyo-Kyu Lee* · Gye-Hwan Li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PRC Marine Corps by analyzing the changing functions via its historical development. The PRCMC is an elite regular military forces and was established by the Central Military Commission(China) in 1953 in order to project the national military power toward the enemy's territory by overcoming maritime obstacles such as seas and lakes. The PRCMC is relatively smaller personnel strength compared with the whole size of the PRC military forces. Thus its functions were limited in the areas of amphibious and land operations, island and land defense against Taiwan before the PRC pursues expanding policy toward outside. However, in the 2000s, China pursues its policy for obtaining absolute national interest so that its functions are rapidly enlarged into defense of the forward naval bases, and those for evolving its power toward outside according to not only the island territorial dispute with Japan, but also Xi Jinping's active expanding policy what we call 'the one belt and one road'. So its personnel strength is slowly increased. If the increasement of the PRC Navy and Marine Corps would develop into the level of which they can contain the status and influence of the US military power in Asia-Pacific area, it is possible that the security environment of the North-east Asia including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fluctuated. Consequently, the ROK also needs to reevaluate the functions and the size of the joint strength of the ROK Navy and Marine Corps considering the transition of the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Key ward : PRC Marine Corps, Functions of Amphibious Forces, Maritime Policy of the PRC,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of the PRC,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PRC in Asia-Pacific

접수일(2017년 11월 21일), 수정일(1차: 2017년 12월 22일),
게재확정일(2017년 12월 31일)

* 단국대학교 해병대군사학과(주저자)

** 경남정보대학교 전문사관과(교신저자)

1. 서 론

최근 트럼프 미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인도-태평양 전략이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일본에서 처음 제안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대 중국 견제에 필요하다고 인식한 미국과 중국과 도서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호응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본격적으로 받고 있다. 또 하나의 화두는 시진핑 사상이 중국 공산당 강령에 삽입된 것이다. 이로 인해, 이제 세계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 강대국의 행보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어쩌면 이것이 군사력보다는 경제 중심의 새로운 양극체제의 국제질서 시대 도래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 핵개발로 세계적인 이목이 동북아에 집중된 가운데, 재래식 군비분야에서도 일본이 센카쿠 열도에 서의 도서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수륙기동전단 창설 계획을 발표하고, 이제 질세라 중국도 남중국해 등지에서의 자국 영해 및 도서방어와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 정책을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해외전진기지 방호를 위해 10만 해병대 양병 설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 이들 국가의 상륙군 창설 및 증강계획은 한반도, 센카쿠 열도, 남중국해, 인도양을 거쳐, 페르시아 만과 아프리카 유럽지역에 이르는 지역에서의 도서 방어와 해양교통로 보호란 고유의 기능과 관련되고 있다. 따라서 각 국의 상륙 전력은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대일로 정책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군종이 될 것이다.

중국과 일본에 추가하여, 전통적 강국인 미국, 러시아를 포함하면 한반도 주변강대국이 때 아닌 상륙전력 군비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중국 해병대 발전과정 고찰을 통해, 그 기능변화를 분석해 보고, 향후 발전전망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한 후, 결론에서, 한국 해병대의 향후 기능과 가치 제고에 주는 교훈을 간략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중국의 사회주의 국가 특성상 군 관련자료 확보가 제한되어, 미국 등 영어권 국가와 국내 주요 기관의 공식발표자료 및 언론에 보도된 자료들을 주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상륙군의 위상과 기능

전쟁의 역사와 함께 발전되어 온 상륙군은 전통적으로 3군, 혹은 4군 체제에 속하는 한 군종으로서, 해양 넘어 타국에 자국의 이익 강요를 목적으로 투사하기 위한 전력이다. 이들은 해군력과 결합되어, 영토 분쟁 시는 직접적인 점령 및 방어수단, 도서 및 해군 전진기지 방어 등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공세적인 성격이 내포되어 있어서 보유 자체만으로도 상대방은 어느 정도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상륙군은 평소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유사시 사용에 대비하여, 자신의 고유 영역인 강제진입작전(상륙작전의 현대적 용어) 수행을 위해 예상되는 작전지역을 선정, 실제 수행준비, 연습, 훈련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탈냉전 시대에 들어서는 영국 킹스칼리지 전쟁연구학과 단테커(dandeker) 교수가 “군사력의 기능은 시대에 맞는 사회적 가치, 여건 등의 변화를 반영, 전략 및 작전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된다.”[1]고 주장한 것처럼, 상륙군의 기능도 국내 및 지역안보 질서 기능을 포함하면서 점차 다목적 다차원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 중 탈냉전 시대 들어 가장 눈에 띄게 변화된 부분이 국내의 질서유지 등의 국내의 정책지원 분야이다(<표 1>참고)[2].

<표 1> 해군력의 주요 기능

구 분	기 능	비 고
전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쟁수행(상륙/지상작전) 영해/교통로 방어 도서/전진기지 보호 	WWII
평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지역안보달성 - 적대(잠재적) 위협 억제 	냉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질서유지(교통로 보호) 해군력 현시(이익 수호) 도서 및 전진기지 방호 	1980, 탈냉전
국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정책 수행 지원 인도적 지원(재해/재난 등) 해양자원 보호 국가 내 안보, 국내법 질서 	현재

3. 역사적 변천과 기능 분석

3.1. 역사적 변천

중국은 북한과의 접경지역인 압록강 하구에서부터 베트남과의 접경지역인 통킹 만까지 대략 18,000km의

해안선과 약 3,500여 개의 섬을 가진 국가이다. 이는 미국의 해안선 길이인 19,924km 와 비교해 보아도 결코 짧지 않다. 역사적으로 문명국가인 중국은 내외부적으로 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매 전쟁 시 상륙작전 수행능력은 중국군에게 꼭 필요한 기능이었다. 그래서인지 중국은 역사적으로 해양력이 융성하였던 시대가 많다. 예를 들면, 명나라 시절 정화제독은 28,000여명의 병력과 60척의 함정을 이용, 1405년 제1차 원정을 시작으로 1433년 제7차 원정까지 남중국해, 페르시아만, 홍해, 마다카스카르 등지의 인도양까지 항해한 기록이 있다[3].

3.1.1. 초기 창설과 해체(1553-1957)

중국에서 현대적 개념의 상륙군이 창설된 것은 1917년 해군 예하 경비대를 재편한 것을 기원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 대만 해병대의 창설로, 정치체제가 완전히 다른 중화인민공화국의 해병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본고의 연구대상인 중국 해병대(The People's Liberation Army Navy Marine Corps (PLA MC) (simplified: 中國人民解放軍海軍陸戰隊; traditional: 中國人民解放軍海軍陸戰隊)는 1953년 4월 국민당이 수립한 대만에 대한 상륙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해병연대를 모태로 창설되어, 동해함대 예하 사단으로 증편되었다[4]. Jane's Fighting Ships이 1953년부터 중국 인민해방군을 데이터에 포함시키면서, 해병대의 규모를 28,000여명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최소 2-3개 사단이 추가 창설되었을 것이다[5].

그러나 이 부대는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탈취 계획을 포기한 1957년 10월에 해체되어, 해군예하 해군보병(Naval Infantry)이란 이름으로 소수의 보병연대와 상륙장갑차 연대로 구성되어 명맥만 유지되고 있었다. 중국이 대만에 대한 상륙작전 수행을 포기한 이유는 찾기 어려우나, 제1차 대만해협 위기 후, 1954년 12월에 대만과 공동방위조약을 체결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약속과 그 이행에 대한 강경한 태도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미국 조지 워싱턴대 국가안보 기록보관소(NSA)가 2008년 4월 30일 공개한 미 공군 기밀보고서의 “당시 미 공군은 10~15킬로톤(kt)의 핵폭탄을 중국의 항구도시인 아모이(현재의 샤먼(廈門))에 투하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내각의 동의까지 얻었

으나, 아이젠하워 당시 대통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는 기록을 통해 잘 알 수 있다[6].

그 후 중국 인민해방군이 1958년 8월 대만과 영토 분쟁 상황에 있던 진먼(金門)섬과 마쭈(馬祖)섬에 대한 포격을 시작하자, 미국은 제7함대를 파견, 포함의 교를 통해 중국에 포격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중국은 두 달 후인 10월 휴전을 선언하였으며, 1995년 제3차 대만해협위기 발생 시까지 약 40여 년간 양안 간 군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3.1.2. 해병대 재창설과 발전

해군예하 해군보병으로 명맥을 유지해 오던 중국해병대는 1979년 중앙군사위원회의 재창설 결정으로 1980년 5월 5일 제1해병여단이 하이난(Hainan, 海南島) 섬에 본부를 두고,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남해함대 예하에 편성되었다. 창설 배경은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남중국해 분쟁의 핵심인 스프래틀리 군도, 파라셀 군도가 하이난도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주변국과의 분쟁 시 혹은 필요에 따라 상륙작전을 수행하거나 도서지역에서 영유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중국은 1983년 4월 중국인민해방군[Jiefangjun Huabao(People's Liberation Army) 관보를 통해 처음으로 서방에 해병대의 조직, 기능, 그리고 장비를 소개하고 있다. 중국 해병대의 기능은 타국 해병대의 그것들과 거의 동일하게 상륙작전 수행, 적 점령 도서 탈취, 전진 해군기지 방호, 해군전역과 관계된 지상전투 참가, 상륙작전을 위한 장비와 전술 연구 및 개발 등으로 소개되었다. 초기 해병대는 중국지상군 부대의 장비와 거의 동일한데, 상륙용 차량은 소련의 PT-76전차와 BTR-50PK APC를 개량하여 자체 생산한 Type 63 85mm 상륙용경장갑차와 M1974 기계화 차량을 사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여단은 평시 3,000여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시에는 25,000여명으로 증편될 예정이었다고 한다[7].

언론보도 자료에 따르면, 1990년 해병대 병력이 6,000여명으로 증강되고 있는데, 이는 41집단군 164 기계화보병사단이 남해함대로 전환되어 광동성 잔장(Zhanjiang, Hainan 섬 반대편 육지)에 기지를 두고 164해병여단으로 재편된 결과라고 한다. 이로써 중국 해병

대는 모두 남중국해를 담당하는 남해함대 예하 해병 여단으로 편성되어, 영유권 분쟁에 대비하고 있다. 중국은 이외에도 대만해협에 인접한 본토 난징의 1, 12, 31, 광저우의 41, 42, 지난의 54집단군에 상륙작전수행이 가능한 부대들을 편성해 두고 있다. 이들은 총 2개 사단으로 언제든 대만에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평소 편성, 장비, 훈련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중국 지상군에 편성된 상륙작전 전담 부대들의 능력을 대만이 점유하고 있는 파라타스 섬이나 스프래틀리 군도 내 이투 아바(Itu Aba) 섬을 대상으로 한 상륙기습이나 중국 본토와 가까운 마쭈(Mazu)나 진먼(Jinmen)군도 같은 도서에 대한 중급규모 상륙돌격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8].

<표 2> 주요 전투 및 훈련 현황

작전/훈련명	주요 내용	비고
마쭈도/진먼군도 상륙기습 (1958.8~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차 대만해협 위기 시 대만점령 도서에 대한 상륙작전 제4집단군의 대패로 종료 	국가간 분쟁
중·베트남 분쟁 (파라셀 군도 작전: 19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가부대: 42척의 전함과 2척의 잠수함의 지원을 받은 1개 대대 베트남 해군/해병대 격퇴시킴 하이난 섬 미그 전투기의 항공지원, 트롤선 2척, 어뢰정 2척 파라셀 군도 우더 섬과 스프레틀리 군도에 해병수색부대 잔류 	도서 영유권 분쟁
중·베트남 분쟁 (19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 쟁탈전 적과초 등 6개 암초 점령 후 수상시설물 건설 및 군대상주를 통한 실효적 지배 상륙함정은 보급/증원 병력 수송 	도서 영유권 분쟁
스프레틀리 암초 점령 (1992.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프레틀리 군도 내 Da Lac 산호초 하이난 섬 남쪽 1,200Km 지점 	
Mischief Reef 점령(19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리핀 령이었으나 중국 령 표식 구조물과 건물 설치 후 부대 진주 	
대만 선거 개입 (19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대만 항구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IRBMs) 추가적으로 3월에 중국 남동쪽 연안지역에 위치하여, 동쪽으로 타이완과 마주보고 있는 푸젠성(Fujian, 복건성) 연안 상륙훈련 부대: 지상군 상륙작전전담 31사단 	대외 정책 지원
중·러 연합 상륙훈련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대: 난징 1집단군 예하 1사단, 광저우 42집단군 예하 124사단 대규모 상륙훈련은 해병대보다 지상군 집단군 예하 상륙작전 전담사단 위주 수행 	
중·러 해군협력(Naval Cooperation) 훈련 (2012-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지중해/해상교통로 보호, 대테러 2차: 동해/대규모상륙, 연합 대공/대함훈련 총 4회 실시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해군예하에 있지 않고 상륙작전을 위해 훈련된 지상군 부대도 상륙군에 포함시킨다면, 중국 상륙군은 최소 지상군 2개 사단과 해병대 2개 여단(제1/164해병여단, Zhanjiang, 남해함대 예하)으로 편성 및 장비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해병대로 해체된 후 해군보병으로, 해병대로, 그리고 지상군 부대로 편성된 중국 상륙군이 수행한 주요 작전 및 훈련 현황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중국의 상륙군은 정규 해병대와 지상군 예하 상륙작전 전담부대로 나뉘어져 있으며, 전자는 주로 남해함대 예하에 편성되어 해양 및 도서 영유권 분쟁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고, 후자는 대만인근 난징 및 광저우 지역 집단군으로 편성되어, 대만에 대한 상륙작전 기능을 전담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중국 해병대의 주 임무는 상륙작전 시 교투보를 확보, 남/동중국해 분쟁 지역에서 도서나 해협으로 상륙기습 혹은 제한된 돌격작전을 수행하는 것이다. 해병대와 지상군에 편성된 상륙작전전담부대를 모두 합하여도 전 중국군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대만에 대한 지상군 예하 상륙부대 기능을 전시 전쟁수행이란 고경변수로 제외하면, 해병대는 남해함대 예하에 편성되어, 남중국해 도서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편성 및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해양영토를 확보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표 2>에 나타난 일련의 작전 및 훈련 중 1974년부터 시작된 남중국해 관련 사항을 보면, 베트남과 필리핀을 무력으로 배제하고, 자국의 시설물을 지어 병력을 상주시켜나가고 있다. 이를 보면, 중국은 해양 분쟁지역에서 과감하게 군사력을 사용함으로써, 힘에 의한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선봉에 해병대가 있다. 또한 해병대는 중국의 향후 발전정책인 일대일로 구축을 위해 해군과 함께 지중해 등지에서 교토로 보호 등 질서유지 기능을 수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3.2. 기능변화 분석

중국 해병대는 중국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바다, 호수 등 해양장애물을 극복하여 적 지역으로 투사를 목적으로 창설되어 흥망을 겪었지만, 정규군으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엘리트 상륙군이다. 난징과 광저우 군구에서 대만에 대한 상륙작전 수행을 위해 편성하고 있

는 상륙작전전담부대 역시 광의의 차원에서 중국의 상륙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세계 최고의 군사전문사이트인 Globalsecurity에서도 지상군에 편성된 상륙전담부대를 해병대로 분류하고 있다[9].

<표 3> 중국 해병대의 순위

순위	국 가 명	명칭(군종)	병력 수
1	미 국	해 병 대	242,675
2	베트남	해군보병	27,000
3	대한민국	해 병 대	25,000
4	태 국	해 병 대	23,000
5	인도네시아	KorMar	20,000
6	중 국	해병대	20,000

중국의 해안선, 경제발전에 필요한 수출입통로로서의 해양의 중요성 등의 지·전략적 환경과 군사력 현황을 보면, 유사시 해병대 전력뿐만 아니라 타 부대를 전용하여 투입해야 할 소요는 많이 있다. 따라서 중국은 기존의 지상군 부대들을 해병대로 전환시켜가면서, 상륙작전부대를 증강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육·해·공 등 고유의 작전환경을 가진 타군에 비해, 상륙작전 임무에만 한정되어 있는 상륙군을 무한정 증강하지는 않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 해병대는 전체 군사력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의 병력으로 편성되어 있어, 창설 초기에는 상륙 및 지상 작전을 통한 전쟁승리에 기여하는 전통적 군사력으로서의 기능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소규모임에도 불구하고, 탈냉전시대에는 G2 중 하나인 중국의 위상에 부합하게 수행하는 기능도 남중국해에서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도서지역 점령 및 확보 등 점차 대외정책 수단으로서의 영역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처럼 군사력이 수행하는 기능은 단순히 그 부대의 규모나 장비와 상관없이 해당국가의 국력이라는 큰 틀에서 역량이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남중국해에서 규모면에서 6위인 중국 해병대가 2위의 베트남을 격퇴하고, 파라셀과 스프래틀리 군도를

자국 영토화한 후, 시설물을 설치하고 군을 배치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양국 간의 총합적인 국력(군사력, 경제력, 정신력 등)이 아닌 특정군의 규모와 역량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단테키 교수가 탈냉전시대 군사력의 기능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국제와 국내로 나뉘어 설명하였듯이, 중국의 국제정치적 위상(세계적, 지역적 등), 경제, 사회적 여건 등 다양한 요인들의 변화에 따라 상륙군을 포함한 해당국가 군사력의 기능도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 해병대의 기능을 <표 1>에 근거하여 분석해 보면, 전시 상륙 및 지상 작전을 통한 전쟁수행, 자국의 이익추구를 위한 적대 세력 견제, 도서방어를 통한 영해 방어, 해상병참선 보호를 위한 교통로 방호작전 등을 수행하였다. 극히, 제한적으로 남중국해 인공 섬에 대한 해병대 현시는 인근 해역에서의 해양질서유지에 일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향후 발전 전망

중국 해병대의 향후 발전전망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대외정책, 국방정책, 해군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이들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상륙군 증감의 환경적 요인으로 제시한 후, 언론보도 등을 기초로 양국 상륙군의 향후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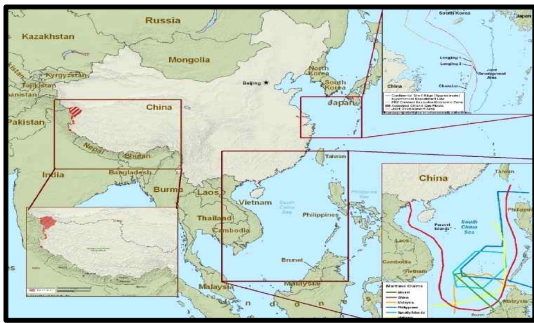
4.1. 증감의 환경적 요인

2016년 3월 실시된 제12기 전국인민대표자 대회 제 4차 회의 개막식에서 리커창 총리는 대외외교 이념을 실현하고, 국가주권과 안전, 발전이익을 수호한다는 대외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10]. 이를 위한 중국의 대외정책 중점은 학자나 분석가들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긴 하나 남중국해 등에서의 해양영유권 확보, 대만통일, 동북지역 발전(북한 포함), 소수민족 관리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중 해양에서의 영유권 확보와 대만통일이란 두 가지 중점 달성의 선봉에 중국 해병대와 지상군이 보유한 상륙작전전담부대가 있다.

중국은 해양 이해관계 추구에 확실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먼저 1992년 ‘영해 및 접속 수역법’ 제정을 통해, 스프래틀리/파라셀 군도, 동중국해 센카쿠 열

도(조어도, 다오위다오 섬)를 자국의 영토로 선언하였다. 다음으로는 1997년 ‘국방법’을 제정, ‘해상권익의 보호’를 중국 해군의 주 임무로 규정함으로써, 군사력을 외교력 향상 수단으로 사용할 것을 천명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해군은 2000년대 초에 1단계 해군력 현대화를 완료하여, 주권분쟁지역에 세력을 투사할 수 있는 역량과 근해에서는 해상교통로를 방호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였다. 현재는 2단계로 2020년까지 ‘경항모’ 등을 확보, 항모전단을 창설, 해군작전 범위와 임무를 필리핀 해와 인도네시아 해역까지 확대하여, 제2도련선 내의 해역에 대한 중거리 전진방어 능력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해양 정책과 해군력 확장의 이면에는 무엇보다도 대 대만관계와 주변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다양한 해양 분쟁이 자리 잡고 있다. 중국은 1998년 이후 주변 6개국과 분쟁 중이던 11개 육상영토 분쟁을 정리하고, 최근에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잠재적 오일 및 가스 매장지역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력을 이용한 강압적 접근을 강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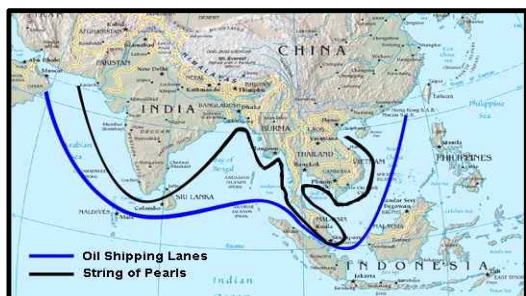
(그림 1) 중국의 주요 분쟁 지역

현재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세계의 주요 영토 분쟁은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인도와의 국경,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남중국해, 일본과의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 분쟁이다. 한국 외교부에서 발표한 중국의 남중국해 관련 주요 동향자료에 따르면, 난사군도 및 그 인근해역에 대해 분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항행 및 비행자유라는 미명 하에 무력을 과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11].

이러한 강경자세는 동남아 제국과 분쟁을 겪고 있

는 스프레 트리군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미국 등 군사강대국과 파라셀 군도 등에도 동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6년 1월 30일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인 커티스 월버 호가 파라셀 군도 인근(중국 측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지역)으로 진입하자, 중국은 도발로 간주하고 해군함정, 항공기, 해병대 등 도서방어부대를 총동원하여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의 근거는 중국이 1992년 발표한 ‘영해 및 접속 수역법’으로, 외국 군함이 중국의 영해에 진입할 경우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의 군대를 동원하여, 모든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가주권 및 안전을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중국은 이들 분쟁지역이 군사적 갈등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고, 주의 조치 등 소프트한 방법을 구사하기도 하나, 무역제재, 군사적 대응 등 제재적 방법도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다. 2015년 이후에는 분쟁지역에 대한 행정력 시위차원에서 해군, 해병대, 연안경비대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 현시 및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해군의 3단계(21-50) 발전계획은 아시아지역에서 입체적 작전능력과 원거리 해상수송로 보호능력을 확보함으로써 미국에 대응하는 해양국가로 성장하는 것이다. 이는 제2도련선 밖의 해역에 대한 장거리 전진방어 능력 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최근 중국의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평화작전 참가는 에너지 자원 수송을 위한 인도양, 지중해, 대서양에 이르는 해상교통로 확보차원에서 점점 가속도가 붙어가고 있다. 중국은 2016년 11월 소말리아 인근 해상과 아덴만에서 정찰임무 수행과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 UN 평화유지작전에 해군 및 지상군의 참가를 강화하기 위해 아프리카 뿔(Horn of Africa) 지역 지부티에 군사지원시설을 설치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기지가 완공된다면, 중국은 전략적 거점지원시설로서의 기능은 제한되지만 기존 캄보디아 쿠크르 항에서 파키스탄 파다르 항을 거쳐, 인도양과 지중해에 이르는 소위 말하는 진주목걸이 형태의 대양진출 및 자원수송 거점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영향력과 군사작전범위가 넓어지게 된다는 것으로 이는 곧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림 2) String of Pearls Strategy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중국의 적극적 대외정책,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 등지에서의 주변국과의 해양 분쟁, 중국 해군의 3단계 발전전략은 중국의 경제적 이해관계 및 해외거주 자국민 보호, 투자여건 보장, 결정적 해상교통로 보호 필요성 증대 등과 맞물려 그 추진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4.2. 향후 발전 전망

중국은 2020년까지 기존의 7개 전구를 동서남북과 북경을 담당하는 중앙 등 5개 전구로 재편하는 등 군사력 현대화 및 군 개혁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해군은 3단계 발전전략에 의거 기존의 해양거부 사상에서 탈피하여 대양해군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시 기능 측면에서 중국해군은 대 수상함전 대응책(ASCMs: Anti Surface Counter Measures)과 초수평선 표적타격체계 현대화를 통해 대 수상함전(Anti Surface Warfare) 수행능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2005년 이후 중국은 대형 YUZHAO-Class (Type 071) LPD 세척을 이미 전력화시켰으며, 4번째 함도 끝 뒤따를 예정이다. YUYI 급 LCMA 4정, 헬기 4대, 50여대 이상의 기계화차량, 대규모 상륙군 탑재 가능함, 이외에도 YUTING II 급 상륙함과 다수의 LCUA를 건조하고, 우크라이나로부터 POMORNIK 급 LCU A 두 척을 수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규모 상륙작전 수송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로써 중국 해군과 해병대는 초수평선 상륙돌격역량과 인도적 지원, 대 해적작전 등 전쟁이외의 군사 활동 수행역량을 동시에 갖추면서, 2025년까지 원정작전이 가능한 부대로 탈바꿈될 예정이다[12].

이러한 사실에 기초로, 중국 상륙군의 향후 발전

가능성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난징과 광저우 군구에 속해있던 대만에 대한 상륙작전전담부대는 각기 동부전구와 남부전구로 재편되었지만, 임무와 전력에는 변화는 없을 것이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경제적 고립, 사이버 전 등 간접적 근방법을 강구해 나가고 있지만, 상륙작전을 통한 대만 수복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다.

둘째, 남해 함대 예하 2개 해병여단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점유의지로 판단해 볼 때, 스프레 트리트 및 파라셀 군도 시설물이 추가적으로 건설되면 필수 록 도서방어, 상륙기습작전, 해상교통로 방호임무 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부대 편제나 병력 규모 역시 그에 비례하여 증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 해병대의 향후 발전가능성은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 증대와 병행한 해외작전 및 활동 소요 증대, 일대일로 정책과 맞물린 진주목걸이 전략 구현에 필요한, 해상교통로 및 해외진진기지 방어임무 증대에 있다. 지난 3월 13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South China Morning Post)가 중국이 점증하고 있는 해외에서의 이해관계 수호를 위해 파키스탄 과다르 항과 인도양의 지부티에 군수기지를 개설하고, 이를 방호하기 위해 해병대를 10만으로 증강할 것이라는 계획을 보도하였다[13]. 과다르 항은 호르무즈 해협에 인접한 내륙 항구로 현 중국해군의 기지는 아니지만, 페르시아 만으로부터의 원유 수입선에 위치하고 있는 중요 거점으로 향후 중국 해군의 진진기지로 건설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군은 235,000에서 약 15% 정도 증편되어 270,000으로, 해병대는 2개 여단 6,000여명에서 추가로 8개 여단이 증편되어, 100,000여명으로 해군 병력의 37%를 차지하게 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10만이란 숫자는 다소 과장된 것이 확실해 보인다.

아직 중국 정부의 공식발표 자료는 찾을 수 없으나, 언론보도를 기초로 향후 중국의 의도와 해병대의 기능을 추정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기존의 제한된 병력과 장비로 인해 연안방어에 제한적으로 운용되던 기능은 다양한 안보 도전요소들을 다룰 수 있는 상륙작전전담부대로 재탄생하게 될 것이다. 중국이 초수평선 원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상륙 전력을 구비한다면, 이는 미국의 대 아태지

역 영향력을 일정부분 견제하는 수단 중의 하나로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14].

둘째, 전 러시아 의회인 두마(Duma) 국제 및 방위 위원회 분석가인 콘스탄틴 소콜로브(Konstantin Sokolov)는 중국이 해병대를 증강하는 이유로 동, 남중국해 도서 분쟁지역에 대한 군사적 대처역량 강화를 들고 있다. 이들 지역에 해병대를 배치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영유권 강화로 중국의 안보이해관계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매장된 자원 확보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15].

셋째, 전 중국 해군정치위원 Liu Xiaojiang는 향후 중국해병대는 대만과의 전쟁수행과 동/남중국해에서의 해양방어에 추가하여 지부티와 과다르에 배치되어, 해상무역통로를 방호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중국의 국가이익, 해양생명선 방호 등 해외에서의 해병대 임무가 증대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는 일대일로 중 일로인 남중국해, 인도/파키스탄을 거쳐 유럽에 이르는 해상교통로에서의 안전한 통항을 통한 수출입여건 확보 등 경제 측면 뿐만 아니라 중동, 아프리카, 유럽지역에 대한 자신의 외교, 정치, 경제, 군사적 영향력 증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16].

기존 중국 해병대의 기능은 대만과의 전쟁수행과 남중국해에서 대 주변국 해양질서 정립을 통한 자국의 영유권 강화에 치중되었다. 하지만, 향후의 중국 해병대의 기능은 자국의 국제정치, 경제적 영향력 증대와 더불어 해군력 현시, 인도적 지원, 해양자원 확보, 해외진진기지 방호, 해상교통로 상에서의 해양질서 유지 등 해군력과 결합된 상륙군으로서 <표 1>에서 언급된 거의 전 기능으로 확대되어 갈 것으로 추정된다.

5. 결 론

한 국가의 상륙군은 해양장애물을 극복, 적지에 상륙하는 전시 기능을 위해 창설되었다. 하지만, 세계 및 지역 안보환경, 전쟁수행개념, 타국에 대한 영향력 발휘수단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거 그 기능은 점차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 본고에서 살펴본 중국 해병대는 어느 타국의 상륙군과 다름없이 상륙작전을 전담하기 위해 창설되었으나, 국가의 국제정치, 경제

등 위상변화에 따라 수행하는 기능은 확대되고 있다.

21세기 들어와 중국이 G2 중의 한 축으로 냉전시대 소련의 위상을 대체하면서, 해병대의 기능은 확대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냉전시대 소련 해군과 해병대는 베트남의 캄란항구에 진진기지를 두고, 인도양과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수단이었다면, 탈냉전시대에는 중국이 파키스탄과 아프리카의 지부티에 해외진진기지를 건설하고 해군과 해병대를 배치함으로써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탄탄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는 중국의 영향력은 오히려 구 소련에 비해 크게 증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중국과 역사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현재에는 센카쿠 열도를 놓고 충돌하고 있는 일본의 수륙기동전단은 미국의 지원 속에 무난히 창설될 것으로 판단된다. 탈냉전시대는 국제정치의 행위자가 군사력에서 경제력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한다. 하지만 북핵문제에 이어 때 아닌 상륙건설 창설 및 증강 열풍은 그 가치가 그만큼 유효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중국 해군과 해병대의 세력증강이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의 아태지역에서의 위상과 영향력을 견제하는 수단으로까지 발전된다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안보환경은 요동칠 가능성이 많다. 한국과 중국 간 방공식별구역과 경제적 배타수역 중첩 문제 등이 산적해 있지만, 아직 양국 간 긴장국면으로 발전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아태지역에 형성된 현재의 세력균형체제가 무너지면, 아니 미국의 관여가 조금이라도 약해진다면,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보여준 것처럼, 한국과 중첩되는 부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강화될 것이고 그에 따라 양국 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최근 서북도서 지역에서 발생한 한중간 어로분쟁 시 해경 사상자가 발생하여, 공용화기를 지급한 것은 한반도 주변 해양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어로분쟁뿐만 아니라 동해상 독도 주변, 제7광구 등의 해양자원을 둘러싼 한·중·일 간 분쟁 가능성은 상시 존재하고 있다. 비주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해경과 해군 및 해병대의 독도방위훈련에서 보듯이, 양국 간 전면전 상황이 아니더라도 해병대는 평시 도서 방어 및 유사시 도서 피탈 시 재탈환 작전에 필수적인 전력이다.

따라서 현시대 발전되고 있는 군사력의 기능변화를 고려, 한국 해병대도 우리의 국력에 부합되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지금은 남북한 대치환경으로 인해 외부 기능 수행이 제한되지만,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전 군의 기능이 재정립될 것이다. 통일 후 한국의 국제정치 및 경제적 위상을 고려 시, 해병대 역시 한반도, 아태지역, 세계의 크고 작은 분쟁해결뿐만 아니라 해양 국익보호수단으로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군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Christopher. Dandeker, "New Times for the Military,"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5(4), (December 1994), pp. 639-642.

[2] 이표규, '국가무장론', 한국학술정보, 2009.

[3] Yu Hao-Chang (Chinese Marine Corps), "Republic of China Marine Corps," *Marine Corps Gazette*, pp. 29-30, November 1966.

[4] Christopher P. Isajiw, "China's PLA Marines: An Emerging Force," *The Diplomat*, October 17, 2013.

[5] James C. Bussert, "China Builds Modern Marine Corps Force," *Signal Magazine*, April 2006.

[6] 연합뉴스, "미 공군, 대만해협 위기 때 핵사용 검토(2008. 5. 1 등록).

[7] Edwin W Besch, "PRC Marines Display Amphibious Arm," *Marine Corps Gazette*, p. 6, April 1984.

[8]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0," *Annual Report to Congress*, pp. 51-60, 2010.

[9] Globalsecurity, "World's Largest Marine Corps," <http://www.globalsecurity.org>.

[10] 외교부 동북아2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3.5-6)," e-중국 이슈, 제80호, 2016. 3. 20.

[11] 동북아2과, "2016년 남중국해 관련 주요 동향," e-중국 이슈, pp. 1-3, 2016. 12. 21.

[12]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6," *Annual Report to Congress*, pp. 6-60, 2016.

[13] Arun Nair, "China To Expand Marine Corps Deployment For Strategic Gwardar Port," *NDTV*, March 13, 2017).

[14] Swee Lean Collin, "Can China Copy the U.S. Marine Corps?," *National interest*.

[15] GlobalSecurity, "People's Liberation Army Navy-Marine Corps," <http://www.globalsecurity.org>, 검색일: 2017. 8. 24.

[16] Jamie Seidel, "China to boost marine corps by 400pc to enforce growing world influence," *News Corp Australia Network*, March 15, 2017.

[저 자 소 개]



이 표 규 (Pyo-Kyu Lee)

1986년 2월 : 해군 사관학교
경영과학(이학사)
1994년 12월 : 국방대학원
군사전략(석사)
2003년 3월 : 영)웨일스 대학교
전략연구(석사)
2006년 3월 : 영)웨일스 대학교
국제정치학 (박사)

email : pyokyumc@dankook.ac.kr



임 계 환 (Gye-Hwan Lim)

1986년 2월 : 해군 사관학교
경영과학(이학사)
1990년 2월 : 국방대학원
운영분석(공학석사)
2016년 8월 : 부경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email : limkh@eagle.kit.ac.kr